



하이메 아욘의 의자

가구에 오토 쿨튀르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될 것이다.

기획 박민정 기자 취재협조 위트먼(www.wittmann.at), 보에(www.bo-e.co.kr)

기능을 함축한 디자인 대신 과감한 물성으로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를 펼치는 스페인 출신의 디자이너 하이메 아욘(Jaime Hayon). '소비되어야 비로소 빛난다'는 상업주의 디자인이 갖고있는 딜레마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마음껏 발현하고 있는 그가 4대째 유럽 정통 장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브랜드 위트먼(Wittmann)과 만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물성으로 가구를 읽어내는 하이메 아욘이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디자인인 왕체어(wing chair)와 이를 변형해 한층

편안한 휴식을 취하도록 디자인된 하이백체어(highback chair)에 클래식한 무드의 벨벳을 씌웠다는 것. 그리고 그 물성의 힘 때문에 클래식한 본질이 읽히기 전, 가장 트렌디한 가구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폐막한 2017 밀라노 가구 박람회(Salone del Mobile di Milano)에서도 화제가 됐던 위트먼과 하이메 아욘의 의자는 빈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모더니즘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화는 핏줄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계승할 때 더욱 오래 남는다.